

간호학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는?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전문대학 간호학과도 4년제가 있더라고요.
일반대학 4년제 간호학과와 어떻게 다른지, 취업 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요.

4년 교육과정 동일해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는 전국 113개 일반대학과 83개 전문대학에 개설돼 있으며 모두 4년제 교육과정입니다. 즉, 기본 커리큘럼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기 동대부영석고 김용진 교사는 “전문대학 간호학 전공은 2011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3년제 간호학과도 2022년 모두 4년제로 전환됐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4년제 학사 학위와 간호사 면허를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취업 시에도 출신 대학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후문입니다. 동일한 자격시험을 거쳐 면허를 획득하는 만큼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전문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데다, 간호사 수요가 공급 대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 학점이 우수한 학생은 졸업 전에 선호도 높은 병원에 취업을 보장받기도 합니다.

서울여자간호대 김선희 교수는 “일반대학 간호학과에 비해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간호학과로만 구성된 단설 전문대학은 혁신지원사업비 등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비가 오롯이 간호학과 학생을 위해 전폭 지원되므로 실습을 포함한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전합니다. ^①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도움말 김선희 교수(서울여자간호대학교)·김용진 교사(경기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